

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
보도자료



제공일자	2020. 11. 29.(일)	사진·영상 유무	사진(×), ENG(×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		
담당부서	건설교통국 교통과	담당자	주무관 박재용 (044-300-5525)

세종버스, 12월 1일부터 무료 마스크 비치
- 마스크 훼손 등 착용불가시 사용 가능·미착용 승객 단속 강화 -

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이춘희)가 코로나19 예방과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버스 내 무료 마스크를 비치하고,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무료 마스크는 마스크를 정상 착용하고 탑승했지만, 마스크, 끈 등이 훼손되거나 오염돼 정상적으로 착용이 불가능한 승객에게 제공된다.

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는 12월 1일부터는 주 1회 이상 무작위로 버스에 승차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.

시는 정부의 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(‘20.8.12)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.

이상옥 시 교통과장은 “버스는 구조상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상시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와 재확산

에 매우 취약하다”며 “시는 버스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3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승객들 또한 마스크 필수 착용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